



2021년 6월 1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10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6. 10(목)	담당부서	통상법무기획과
담당과장	정경록 과장(044-203-4870)	담당자	서주원 사무관(044-203-4863)

## 산업부, 석유화학·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'21.6.10일(목)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'석유화학·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'를 개최하였다.
- 금번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 5.20일 개최된 「철강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\*」에 이어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민관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,
  - \* 포스코, 현대제철 등 12개 철강업계 통상담당 임원 참석
- 석유화학·타이어업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영향과 주요 양자·다자 통상현안을 점검하고,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입규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.

### <석유화학·타이어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요>

- ◇ 일시·장소 : '21.6.10(목) 15:00~16:30 / 대한상공회의소
- ◇ 참 석 : (산업부)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, 통상법무기획과 등  
(업계) 전경인 금호석유화학 상무, 정종은 LG화학 담당임원, 최영국 한국타이어 상무, 마상문 금호타이어 상무, 구분형 넥센타이어 상무, 박재형 석유화학협회 본부장, 정태윤 타이어협회 부회장 등
- ◇ 의제 : ① 석유화학·타이어업계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  
②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

- 이번 회의에서 업계는 코로나 백신보급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,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함께 대응해주시기를 요청하였다.

\* 석유화학·타이어 분야 수입규제 현황('21.5) : 반덤핑 39건, 세이프가드 8건

- 특히, 석유화학 업계는 ▲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조치 확대와 ▲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환경조치 도입동향,
- 타이어 업계는 ▲ AFA 등 반덤핑 조사기법, ▲ 타이어 수입제한 조치 등 비관세장벽, ▲ 환율상계관세 동향에 우려를 표명하였다.
- 관련 협회 등은 ① 국가별·유형별 수입규제 현황과 특징, ② 외국의 새로운 규제 입법동향, ③ 수입규제 대응 유의사항 및 사례 등을 공유하였고,
- 참석자들은 환율상계관세·PMS·AFA 등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기법 주요내용·최근 적용사례·대응현황 등을 논의하였다.
  - \* Particular Market Situation(특정시장상황), Adverse Facts Available(불리한 가용정보)
- 또한,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, 비관세장벽 강화 입법안의 우리업계 영향 가능성과 대응방향도 논의하였다.
- 산업부는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1) 현지 규제동향 파악, 2) WTO절차 준수, 3) 정부와의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당부하였다.
- 김정일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“코로나19, 탄소중립 논의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”고 강조하고,
- “탄소국경조정 등 환경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고, 무역장벽 수단이 되지 않도록 양·다자적으로 대응하는 한편,
- 코로나 19 이후 세계경제 회복과정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우리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산업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수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·환경 등 新통상 이슈의 무역장벽화를 방지하기 위해, 국내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다.